



11면

남원시, '바이오에스팅센터' 건립 본격 추진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음 7월 18일) 제3571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튜링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6곳 가지정

(가칭)

도내 유치원 3곳·어린이집 3곳... 이달 말 최종 지정 여부 결정,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내 유치원 3개원과 어린이집 3개소를 교육부가 추진하는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가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모를 통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대상으로 가지정된 6개 기관은 관계법령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한 뒤 8월 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선정기관으로 지정되면 오는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영·유아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영·유아학교는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수요 맞춤형 교육·보육의 질 개선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에게는 질 높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보장하고, 교사는 교육시간 감축·연수 기회 보장 등 근무 여건이 개선된다. 또 학부모에게는 충분한 이용 시간과 맞춤형 돌봄이 제공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영·유아학교의 안정적인 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토닥토닥 마음성장 프로그램, 한맘 건설 팀단, 영·유아학교 한맘 운영협의회, 한맘 아이행복 교사단, 한맘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실 유초등특수교육과정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전북형



태종 '종다리' 대비 재난대책회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0일 태종 '종다리'의 복상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상황실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각 부서별 대처상황을 점검 및 시장·군수 들에게 비상한 각오로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유보통합모델을 구축하고, 기관간 교육·보육 여건 차이를 개선해 나

가겠다"면서 "영유아와 학부모는 물론 교원이 모두 만족하는 유보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드론테러 대응, 실전과 같이'

전북자치도, 비상사태 역량 강화 실제훈련

행정·군·경·소방 등 8개 유관기관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일 무주 양수발전소에서 2024년 을지연습도 대표 실제훈련인 '무주양수발전소 드론 테러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관련사진 3면>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실제 훈련에는 35사단을 비롯해 773부대 1대대, 7공수특전여단, 무주경찰서, 무주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무주지사, 무주양수발전소, 무주보건의료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전술 차량, 소방차, 구급차 및 대테러장비 등 각종 장비도 동원됐다.

또한, 훈련 참관을 위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 황인홍 무주군수, 김광석 35사단장, 전북경찰청장 등 전북자치도 통합방위위원 및 주요 유관기관장 등도 참석했다.

훈련은 적의 무인항공기(드론)을 이

용한 공격 및 테러 발생을 가정하여 △테러로 인한 시설물 화재 발생 △시설 내 근무인원 긴급 대피 △적 섬멸 및 드론 무력화 △시설 내 부상자 이송 및 화재 진압 △시설 전기 복구 순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날이 갈수록 드론 테러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테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러한 테러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하고 오늘 훈련처럼 실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기관별로 긴밀하게 협조해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4년 을지연습은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동시 실시되며,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비상대비 훈련이다. /이만호 기자

스마트축산 패키지 지원 공모 도내 15곳 선정

전북자치도, 국비 29억원 확보

도내 스마트 축산 확대 전환점

전북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축산농가 15개소가 선정돼 국비 2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은 기존 단순 스마트 장비 지원이 아닌 축산농장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번식, 사양 및 환경관리 등 다양한 현장 문제를 여러 종류의 스마트축산 장비 연계 운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자의 축산 현장에 맞게 적용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2월부터 민관연이 참여한 스마트 축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7월 전국 최초로 사업 및 농가를 대상으로 광역단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빠른 공모 대응으로 전국 77개소 중 15개소(전국 2위)가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이 전북자치도 스마트 축산 확대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그치지 않고, 향후 도내 축산 ICT 업체도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당정 "온누리상품권 5조5000억원까지 늘리겠다"

유망 소상공인에 5000억원 규모 용자 지원도...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 9만대로 늘려

당정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유망 소상공인이 이커머스 사업을 추진할 때 용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의 전용 자금도 신설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책부터 살

펴보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제한업종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한다. 키오스크 수수료 반값 할인도 연내 추진된다.

이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전용자금 5,000억원도 새로 편성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자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알파(α) 수준으로 확대된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도 대폭 늘렸다. 현재 전기차에 적용되는 구매보조금 항목을 승합차 등에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자녀가구에 적용되는 K패스 교통카드 할인률도 최대 50%로 늘어난다. KTX, SRT 탑승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탑승 인원와 상관없이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된다. 최근

논란이 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충전기 보급도 9만대까지 늘어난다.

이외에 무인 과외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도 추가 도입하고, 여객선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 보급 예산 등도 국고로 반영한다.

의료공백 대책도 내놴. 먼저 의과대학 내 필요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공공 야간심야 약국 직원 개소수를 3배 이상 확대해 야간에도 필요한 약을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당정은 건전재정 기초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 복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할 계획이다. /뉴시스



전주매일 캠페인